

장기(長鬢)에서 돌아본 다산(茶山)의 삶과 철학

<삶>

다산의 첫 유배지 장기(포항 남쪽 동해안, 문무대왕릉 감포와 가까운 지역)는 그가 대부분의 유배기를 보낸 강진보다 덜 알려져 있다. 신유교안(辛酉教案, 1801년) 후 2월 29일 서울에서 출발하여 3월 9일 장기 관아 도착, 10월 20일 황사영 사건으로 체포되어 다시 서울로 압송되었으니, 7개월 조금 넘게 지냈던 셈이다. 그러나 이 시기 다산의 시와 문장은 그의 절망과 희망, 새로운 철학의 출발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광중본 「자찬묘지명」에서 그는 이렇게 적었다.

辛酉春，臺臣閔命赫等，以西教事發啓，與李家煥·李承薰等下獄，既而二兄若銓·若鍾，皆被逮，一死二生。諸大臣議白放，唯徐龍輔執不可，鏞配長鬢縣，銓配新智島。秋逆賊黃嗣永就捕，惡人洪義運·李基慶等，謀殺鏞百計，得朝旨，鏞與銓又被逮按事，無與知狀，獄又不成。蒙太妃酌處，鏞配康津縣，銓配黑山島。

“신유년 봄, 대신(臺臣) 민명혁 등이 서교의 일로 고발장을 냈다. (나는) 이가환, 이승훈 등과 하옥되었다. 이어 두 형도 체포되었는데, 하나는 죽고, 둘은 살았다. 여러 대신(大臣)들이 풀어주자(白放)고 논의했으나 한 사람, 서용보가 불가하다고 고집했다. 나는 장기현으로, 약전은 신지도로 유배되었다. 가을, 역적 황사영이 체포되었고, 악인 홍희운(홍낙안), 이기경 등이 나를 죽이려고 온갖 계책을 부려 조정의 인가를 얻었다. 나와 약전은 다시 체포되어 심문받았으나 연관된 정황이 없어 옥사가 성립하지 않았다. 태비의 참작을 입어 나는 강진현으로, 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었다.”

‘일생이사’라는 짧은 표현이 셋째 형 약종에 관한 다산의 유일한 기록이다. 그리고 악인, 역적 등의 표현을 통해 40세 다산의 좌절과 분노, 배신감과 안도감 등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죽을 뻔 하다 모면하고, 살아날 뻔 하다가 꺾여 결국 “신룡이 섬들을 휩쓸어버렸다는(豈有龍來平島嶼(기성잡시 中))” 행한 동해 바닷가로 쓸려온 다산. 그는 오자마자 자신을 맘껏 비웃었다. 자소(自笑)라는 연작시다.

초초한 그 옷차림 바로 너를 속인 것이지 / 草草冠裳是汝欺
십년을 쏘냈지만 피곤 말고 소득이 뭐가 / 十年驅策祇奔波
만물을 다 안다면서 대답 못하는 우자이며 / 智周萬物愚無對
천인이 이름 알아도 그 뒤에는 휘방인 것을 / 名動千人謗已隨
미인이 흔히 박명하다고 그 기록 안 보았던가 / 不見紅顏多薄命
백안으로 보는 자는 언제나 친지 쪽이데 / 由來白眼在親知
뱀비늘에 매미날개 게서 뭘 기대하리 / 蛇鱗蝸翼終何待
우스워라 나야말로 철저한 멍청이로세 / 自笑吾生到底癡

다산은 생각했다. “10년의 치열한 공직 생활은 허망했고, 명석한 두뇌는 ‘뱀 비늘과 매미 날개’처럼 바스러졌다. 가까운 벗들이 가장 먼저 돌아섰으니, 나라 걱정은커녕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워졌다. 나야말로 천치[到底癡, imbecile]다.”

그래서 자신을 비참하게 내몬 세상을 비웃기도 했다.

천리마가 내달릴 땐 꼬리에 붙은 파리도 좋게 보이지만 / 驥展好看蠅附尾
 용이 고꾸라지면 개미가 비늘에 들어와도 막지 못한다네 / 龍顛不禁蟻侵鱗
 어지러운 세상사 보면 홀로 웃음이 나와 / 紛綸物態成孤笑
 동화의 먼지 속에다 묻어두고 말자꾸나 / 一任東華暗軟塵

처음 도착한 유배지에서 근심은 깊어가고, 트라우마로 인한 악몽은 밤을 괴롭힌다. (시름 [愁])

바위로 눌러도 시름은 다시 일고 / 愁將石壓猶還起
 연기처럼 꿈 자리는 언제나 흐릿하다. / 夢似煙迷每不明

생각 생각 모두가 부질없음을 알지만, / 極知想念都無賴
 괴로워라 하늘이 내게 칠정을 주셨다네. / 良苦皇天賦七情

그러다 또 한편, 이 절망을 함께 할 옛 사람들을 불러 위안을 얻기도 한다. (「내가 그리는 옛 사람(我思古人行)」) 나이 50에 잘못을 깨달은 거백옥(遽伯玉), 19년을 흉노에 잡혀 갔다 돌아 온 소무(蘇武), 그리고 불교를 비판하다가 8천리 귀양을 떠난 한유(韓愈)가 있다. “나는 거백옥보다 10년이나 일찍 잘못을 깨쳤고, 소무의 19년에 비하면 유배 온 지 19일밖에 안되었으며, 한유의 8천리에 비하면 8백리 정도밖에 가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나, 8백리라고 해도 그리움이야 덜할까. 꽃을 봐도 시들한 마음이다.(귀양살이에서의 여덟 가지 취미생활[遷居八趣])

온갖 꽃 다 꺾어 봐도 / 折取百花看
 우리집 꽃만은 못하구나. / 不如吾家花
 꽃 품종이 달라서가 아니라 / 也非花品別
 다만 우리집에 있어서야. / 祇是在吾家

봄비에 늘어진 수양버들을 보면서도 나는 그리움에 애타고 있을 뿐이다.

수양버들 천만 가닥 楊柳千萬絲
 실실이 봄빛일세 絲絲得青春
 실실이 봄비에 젖어 絲絲露好雨
 실실이 애를 태우네. 絲絲惱殺人

그는 못가는 고향의 풍경을 그려 곁에 두고 늘 보려는 생각을 냈다. 소동파가 예전에 「아미산도(蛾眉山圖)」를 그렸듯이. “화가가 없어 누구를 시킬 수도 없고, 어설픈 솜씨로 수묵을 찍어 초벌을 스케치 해 본다. 형태는 대강 나오는데, 산모양과 물빛이 여전히 모호하다.” 그는 그 어설픈 그림을 어루만지며, 소나무 정자와 뒷산, 모래톱, 그리고 수종사의 지세까지 아득히 떠올린다. 그런데 그려놓고 보니 그리움은 증폭될 뿐.(장난삼아 그려본 소계도[戲作蒼溪圖])

우리 집 저기 있으나 갈 수가 없어 / 吾廬在彼不得往
나로 하여금 그림 보고 공연히 서성이게 하네 / 使我對此空踟躕

봄이 지나자 아내가 담근 송엽주 한 잔이 생각나고, 달밤에는 물란 이야기 들려줄 아내가 더욱 보고싶다. 다음번에 부칠 편지를 쓰며 그리움을 달랜다.(전원(田園))

전원에서 함께 살자 마음을 굳혔더니 / 田園偕隱結心期
인간에는 이별이 있는지 생각지 못했네. / 不意人生有別離
봄이 가니 부질없이 송엽주가 생각나는데 / 春去空懷松葉酒
달 밝은 때 목란사 들어줄 이 누구인가. / 月明誰聽木蘭詞
외톨이 꼬꼬리 나무에 앉아 기다리는 게 벗이겠지 / 孤鶯坐樹應須友
제비 쌍쌍 집을 지어 새끼 잘 기르고. / 雙燕營巢好養兒
쓸데없는 수심으로 백발을 재촉 말자 / 莫把閒愁催白髮
때때로 서찰로 그리움 달래야지. / 時將手札慰相思

어린 아들이 담은 밤톨이 편지와 동봉되어 왔을 때의 감동도 시에 담았다. 밤톨을 담은 어린 아들의 동심(童心)에 그만 슬퍼져, 손에 쥐고 하늘을 보며 눈시울을 적신다.(자식이 밤을 부쳐오다[穉子寄栗至])

아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예쁘고 / 眷係憐心曲
봉할 때의 그 손놀림이 아른거리누나. / 封緘憶手功
먹으려 하니 되레 마음에 걸려 / 欲嘗還不樂
구슬피 먼 하늘을 바라다보네. / 惆悵視長空

한편, 다산은 남한강 마재 출신이고 관향은 압해(나주), 15-6세 때 화순 현감인 아버지를 따라간 적도 있으니 아무래도 경상도 음식이나 바닷고기에 익숙한 입맛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산에게 장기에서 매일 아침 먹는 가자미국은 한 마디로 '음식'이 아니었다.(추회(秋懷))

꽃게의 엄지발이 참으로 유명한데 / 紅擘螯蜂儘有名
아침마다 대하는 것 가자미국뿐이라네 / 朝朝還對鰈魚羹
개구리알도 밀죽(蜜唧, 꿀에 쟀 새끼 쥐)도 오히려 먹겠는데 / 蠅蛇蜜唧猶相餉
남쪽 요리와 북쪽 요리가 다르다고 우기지는 마소 / 休說南烹異北烹

그러나 다산은 절망의 바다를 계속 표류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의 바다는 신룡이 휩쓸고 간 폐허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일렁이는 생명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밝은 달이 동해에 떠오르면 / 明月出東溟
금물결이 만리를 일렁이는데 / 金波盪萬里

맑은 날 바닷가에 서서 다산은 이렇게 읊었다.(늦개임[晚晴])

하늘에 노을가지 말끔히 걷히고 / 碧落收餘靄
 맑고 시원하기 마치 가을 같아 / 瀟瀟氣似秋
 채소밭에 젖은 나비 날아들고 / 菜園飛濕蝶
 어부 집에선 말린 고기 별 쪼이네 / 漁戶晒新鱸
 바다 넓어 하이까지 닿아 있고 / 水接鰓夷潤
 구름은 래마도 싸잡아 떠있구나 / 雲銜馬島浮

어느 아침 탁 트인 호연한 기상을 느끼며, 자연과 인간을 너른 품 속에서 바라보며 다산은 “막다른 길 끝에서 원한과 복수심으로 마음이 협착되지 않도록(窮途只怕胸懷窄)” 크게 숨을 쉰다. 그리고 그 귀양지의 바다를 희망과 긍정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고시(古詩) 27수)

바다 장사치들 큰 이득 노려 / 海賈射重利
 사나운 파도도 마다 않는데, / 不避風濤險
 높이 날 앞길이 있다면야 / 前程有騰翥
 영해 땅 귀양살이 어이 마다할까. / 安辭嶺海貶
 탄핵 글밭 서릿발처럼 살벌해도 / 彈文凜如霜
 바른 기운은 그 위세의 불길을 휘어잡으리. / 正氣凌威燄

다산은 ‘떴떴함’을 체험하고 있다. ‘탄핵과 배신의 손가락질이 매섭지만 나는 나의 ‘정기(正氣)’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가, 나중이라도 내 간담(肝膽)을 알아 줄 것이니, 나는 백세 후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마음 속으로 외치고 있다. 장기 앞바다의 풍랑을 바라보며, 다산은 다시 일어서고 있다.

<철학>

장기 유배기는 다산에게 중요한 철학적 전환점이기도 하다. 1801년 작성된 두 편의 「리발기발변」은 조선 유학의 최대 논쟁인 사단칠정 논쟁에 대한 나름의 종결이기도 하고, 1784년 『중용』 조대를 준비하면서 일어난 이벽과의 논쟁을 더 높은 차원에서 종합한 결과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마치 삶의 바깥에 서 있는 사람처럼, 심신이 피폐했을 장기 유배 시기 다산은 오히려 자기 집 서재에서 명상하고 있는 듯한 평온함으로 자신의 설을 정돈하였다.

정조의 죽음과 더불어 찾아온 피바람에 쓸려 집안은 풍지박산 나고 겨우 부지한 목숨으로 유배온 머나먼 땅끝에서 덩어리진 한과 슬픔을 다독이기도 아직 버거웠을 그때 어떻게 이런 한가한(?) 글을 쓰고 있었을까. 논자에게는 그것이 언제나 섭득하게 다가온다. (한형조, 『주희에서 정약용으로』, 155쪽)

글 자체는 건조하게 읽히지만, 사실 이 글은 망우 이벽에 대한 회억의 념이 담긴 것이기도 하다. 다산은 「리발기발변」을 짓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이벽과 관련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中庸講義補』 권1, 「朱子序」. ○李德操曰: “若就理字·氣字之原義而公論之, 則此說固近之. 若就性理家所言之例而剖論之, 則理只是道心, 氣只是人心. 心之自性靈而發者爲理發, 心之自形軀而發者爲氣發. 由是言之, 退溪之說甚精微, 栗谷之說不可從.” 謂余錯主此論, 此乾隆甲辰事也. 嘉慶辛酉夏, 余在長鬢謫中, 作〈理發氣發辨〉, 以辨斯義.

이덕조가 말하길, “만약 리와 기의 원 뜻에 나아가 보편적으로 논한다면[公論] 이 설(율곡)이 참으로 옳지만, 만약 성리가가 말한 예시들에 나아가 개별적으로 논한다면[剖論] 리는 다만 도심(道心)이요, 기는 다만 인심(人心)이다. 마음이 성령(性靈)으로부터 발한 것을 리발이라 하고, 마음이 육신(形軀)으로부터 발한 것은 기발이라 한다. 이로부터 말한다면 퇴계의 설이 매우 정미하고, 율곡의 설은 따를 수 없다.” 라 하고 내가 이 논의를 잘못 주장하였다고 비판하였으니, 건륭 갑진년(1784)의 일이었다. 가경 신유년(1801) 여름 나는 장기 적소에 있으면서 「리발기발변」을 지어 이 의리를 변설하였다.

이벽이 말한 ‘공론’과 ‘부론’의 구분은 「리발기발변1」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벽의 퇴계설에 대한 지지도 다산에게 1795년의 「서암강학기」와 「도산사숙록」 등에서 나름대로 소화되어 「리발기발변2」에서 정리되고 있다. 우선 「리발기발변1」에서는,

나는 일찍이 두 선생의 글을 취하여 읽으면서 면밀히 그 견해가 갈라진 이유를 찾아보았다. 곧 두 분이 말한 ‘리’ 다, ‘기’ 다 한 것은, 그 글자는 비록 같으나 그 지향한 것은 부분적[專]인 것과 전체적[總]인 것의 차이가 있었다. 곧 퇴계는 퇴계대로 하나의 리기(理氣)를 논하였고, 율곡은 율곡대로 하나의 리기를 논한 것이지 율곡이 퇴계의 리기를 취하여 어지럽힌 것은 아니다.

대개 퇴계는 오로지 인심에 나아가서 환하게 열어 놓은 것이니, 그가 말한 ‘리’ 는 바로 ‘본연지성’ 이며, ‘도심’ 이며, ‘천리지공(天理之公)’ 이요, 그가 말한 ‘기’ 는 바로 ‘기질지성’ 이며, ‘인심’ 이며, ‘인욕지사(人慾之私)’ 이다. 사단과 칠정이 발하는 데 있어서는 공사(公私)의 나뉘어 있음이 있어서 사단은 리발이 되고 칠정은 기발이 된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율곡은 태극(太極) 이래의 리기를 총괄하여 공론(公論)한 말이니, 이를테면 무릇 천하의 물건이 발하기 전에는 비록 먼저 리가 있는 것이지만, 바야흐로 그것이 발할 때는 기가 반드시 리보다 앞서는 것이니 비록 사단과 칠정에 있어서도 오직 공(公)한 경우만을 예로 삼았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이 모두 기발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 그가 말한 리는 바로 형이상이며, 바로 만물의 근본 법칙이요, 그가 말한 기는 바로 형이하이며, 바로 만물의 형질임을 말한 것이지, 절절하게 심(心)·성(性)·정(情)을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니다.¹⁾

퇴계의 ‘부분적’ 논의와 율곡의 ‘전체적’ 논의는 이벽의 공론-부론 구분의 패러프레이징이라

1) 『문집』 권12, 「理發氣發辨 一」. 余嘗取二子之書而讀之, 密求其見解之所由分. 乃二子之曰理曰氣, 其字雖同, 而其所指有專有總, 卽退溪自論一理氣, 栗谷自論一理氣, 非栗谷取退溪之理氣而汨亂之爾. 蓋退溪專就人心上八字打開, 其云理者, 是本然之性, 是道心, 是天理之公, 其云氣者, 是氣質之性, 是人心, 是人欲之私, 故謂四端七情之發, 有公私之分, 而四爲理發, 七爲氣發也. 栗谷總執太極以來理氣而公論之, 謂凡天下之物, 未發之前, 雖先有理, 方其發也, 氣必先之, 雖四端七情, 亦唯以公例例之, 故曰四七皆氣發也. 其云理者, 是形而上, 是物之本則, 其云氣者, 是形而下, 是物之形質, 非故切切以心性言言之也.

할 수 있다. 또한 끝부분에서 ‘절절하게’ 심성정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퇴계의 설 쪽이 심성정의 문제를 더욱 절절하게, 혹은 이벽의 표현대로 ‘정미하게’ 파악했다는 의미이다. 다산은 퇴계와 율곡을 병치시키면서도 퇴계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 같은 글에서 정약용은 “퇴계의 말은 비교적 주밀하고 상세하고, 율곡의 말은 비교적 넓고 간결하다(退溪之言, 較密較細, 栗谷之言, 較闊較簡.)”고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표현 또한 퇴계 심학의 정밀함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리발기발변2」에서 다산은 이번엔 오로지 퇴계의 설을 중심으로 새롭게 글을 추가한 것이다.

「리발기발변2」에서는 「리발기발변1」의 공-사 개념을 더욱 밀고 나가 사단-공-리발, 칠정-사-기발이라는 퇴계설의 정리를 스스로 수정하고 오로지 천리지공-인욕지사의 구분을 통한 인심과 도심의 갈림길에 주목하는 심성론을 제기한다.

사단도 내 마음에서 나오고 칠정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마음에 리와 기의 두 구멍이 있어서 각각 리와 기를 나가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군자(君子)가 정존·동찰함에, 무릇 한 생각이 발하면 즉시 두려워하며 맹렬히 반성하기를 “이 생각이 천리지공에서 발한 것인가, 인욕지사에서 발한 것인가? 이 생각이 도심인가, 인심인가?” 하고, 밀집하고도 절실하게 추구하여, 이것이 과연 천리지공이면 그것을 배양하고 확충하며, 혹은 인욕지사에서 나온 것이면 막아서 꺾고, 이겨서 회복하는 것이니, 군자가 입술이 마르고 혀가 닳도록 독실하게 리발기발을 변론한 것은 바로 이를 위한 것이었다. 진실로 발하게 하는 소유(所由)만을 알 뿐이라면 변론해서 무엇하겠는가? 퇴계는 일생 동안 치심(治心)·양성(養性)의 공부에 힘썼기 때문에, 그 (심성에서의) 리발과 기발을 분언(分言)하여 오직 그 구분이 분명하지 못할까 우려하였던 것이다. 배우는 자가 이 뜻을 살피서 깊이 체득한다면 이는 바로 퇴계의 충도(忠徒)이리라.²⁾

여기서 논의가 급격히 압축된다. 다산은 사단-칠정의 도덕정감의 구분을 모두 하나의 마음이 발하는 공-사의 방향성의 문제로 응축시키고 있다. 퇴계 심학이 열어보여준 ‘절절한’ 인간 심성의 현실성을 출발점으로 삼아 실천의 철학을 창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퇴계의 정존-동찰의 공부론을 벗어나 마음의 반성적 성찰과 의지적 제어라는 새로운 공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다산은 실질적으로는 사단과 칠정의 심성정 논의를 종결시킨 것이다. 공과 사를 축으로 한 사유의 구조화 및 단순화는 그가 23세 때부터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퇴계와 율곡을 둘러싸고 이벽의 사유와 대립하고 융화하여 이른 하나의 결말로서, 조선 유학의 사단칠정논변에 대한 하나의 간명한 정리이기도 하지만, 향후 주자학의 틀을 벗어나 강진 유배 시기 수립하게 되는 새로운 공부론의 출발을 알리는 이정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벽과의 사상적 대립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 유학의 최대 논쟁을 나름의 관점으로 섭렵하고 또 요약해가면서, 강진에서 초로의 다산은 주자학의 한계점을 넘어 자신만의 공부론 체계를 수립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그렇기에 장기에서의 「리발기발변」 작성은 정약용의 사유의 궤적에서 하나의 전환점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문집』 권12, 「理發氣發辨 二」. 四端由吾心, 七情由吾心, 非其心有理氣二寶而各出之使去也. 君子之靜存而動察也, 凡有一念之發, 卽已惕然猛省曰: “是念發於天理之公平乎, 發於人欲之私乎? 是道心乎, 是人心乎?” 密切究推, 是果天理之公, 則培之養之, 擴而充之, 而或出於人欲之私, 則遏之折之, 克而復之, 君子之焦唇敝舌, 而慥慥乎理發氣發之辯者, 正爲是也. 苟知其所由發而已, 則辨之何爲哉? 退溪一生用力於治心養性之功, 故分言其理發氣發, 而唯恐其不明. 學者察此意而深體之, 則斯退溪之忠徒也.